

이현정
Analyst
hj202.lee@samsung.com
02 2020 7026

Grab (Private)

우버 잡고 동남아를 움켜쥐다

AT A GLANCE

상장 예정시기	미정
기업가치 (by VC)	110억 달러
매출액 (2018년 기준)	10억 달러 (추정)
주요 주주현황	1) 소프트뱅크 (30% 이상) 2) 우버 (최대 27.5%) 3) 디디추싱 (15% 이상)

WHAT'S THE STORY

동남아는 Grab이다: 710만명의 기사를 확보한 동남아 권역의 최대 차량공유 플랫폼 기업이다. 동남아시아 8개국 336개 도시에서 택시, 오토바이, 차량공유 사업 등을 운영한다. 누적 승차건수 기준 글로벌 승차공유 시장에서 디디추싱과 우버 다음으로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결제시장을 장악하라: Grab Pay를 통한 결제 서비스의 혁신은 이미 진행 중이다. 태국의 지역 노점상에서도 가격 옆에 붙여둔 QR코드로 결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인도네시아인 가운데 은행 계좌를 보유한 사람의 비율은 2017년 49%에서 2019년 70%로 늘어날 전망이다. 온·오프라인 결제를 장악하면 금융 영역으로도 확장이 가능하다. 중국 최대 온라인보험사인 중안보험(6060.HK)과 JV를 설립하고 온라인 보험을 출시하여 핀테크 분야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지역별 네트워크 효과: 동남아 시장에서 우버의 철수는 문화적인 특수성과 현지 이슈로 인해 글로벌 독점 차량공유 플랫폼이 출현하기 어려움을 확인한 사례다. 이후 동남아 시장은 그랩이 독식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만 고객이 활약하고 있을 뿐이다. 올해 인도네시아 시장 공략을 위해 신규로 자금을 유치했다. 동남아 시장 독점을 향한 그랩과 자국 이외의 시장으로 영역을 확장하려는 고객의 경쟁이 예고된다.

수익 기대는 시기상조: 고성장은 유지되었지만 아직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전용 지도 제작 및 GPS시스템에 투자하고 데이터 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도 필요하다. 지역 사업자(택시), 정부, 하드웨어(완성차) 기업과 협력하여 플랫폼 확장도 지속해야 한다.

Valuation & 투자전략: 그랩은 아직 가야할 길이 멀지만 루트가 비교적 명확하다. 우버, 디디추싱 등 앞서 성장한 차량공유 기업이 걸어간 길을 학습하면 된다. 글로벌 투자자들도 그랩의 성장 가능성에 베풀리며 투자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2019년 3월 소프트뱅크에서 15억 달러를 추가 유치하여 누적 펀딩 규모가 87억 달러에 달한다. 기업가치 110억 달러(최근 라운드 기준 VC 산정 가치)로 평가되고 있다. 동남아 지역의 최대 유니콘 기업이다.

지역 내 경쟁업체 고객: 동남아시아 최대 인구 보유국인 인도네시아에서 2011년 설립된 업체로 해당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구축하고 있다. 전세계 교통체증 1위 도시인 자카르타에서 바이크 택시(O jek)는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다. 인도네시아 시장의 40%를 점유하고 있다. 고객도 결제 시장 장악에 집중하고 있다. 올해 태국을 시작으로 동남아 타 국가에 본격적으로 진출했다.

그랩은 향후 인도네시아에서 푸드 딜리버리 등 서비스 영역을 확대하여 동남아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확고히 할 예정이다. 시장 장악을 완성하기 위한 그랩과 고객의 경쟁이 예고된다

회사소개

동남아 지역을 여행할 때 도로 등 인프라가 잘 갖춰지지 않아 렌터카를 이용하기 부담스러운 경험
 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택시를 이용하기에는 이동할 때마다 흥정을 하는 피곤함이 따른다.

동남아 권역을 장악하고 있는 차량공유 업체는 그랩이다. 그랩은 흥정할 필요도 없고 목적지에
 대한 추가 소통의 어려움이 없어 여행객에게 편리한 교통수단의 기능을 한다. 실제로 여행 리뷰
 사이트에서 동남아 여행객들이 그랩(과거에는 우버)을 이용한 후기를 쉽게 접할 수 있다.

창업자 앤서니 탄은 말레이시아 최대 자동차 유통업체 탄청모터스 경영자의 아들로 하버드
 MBA 재학 시절 아시아판 우버를 기획한다. 불친절하고 무질서하기로 정평이 난 쿠알라룸푸르
 택시 서비스의 대안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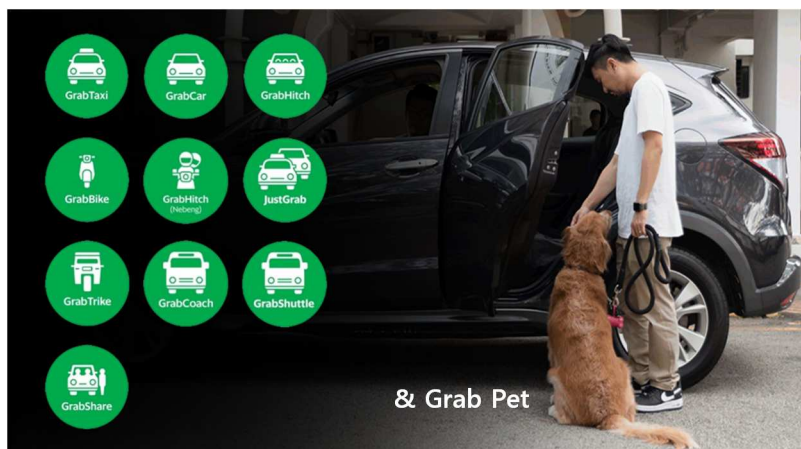
40명의 드라이버와 함께 사업을 시작한지 6년 후 그랩은 710만명의 기사를 확보한 동남아 권역
 의 최대 차량공유 플랫폼 기업으로 등극했다. 동남아시아 8개국 336개 도시에서 택시, 오토바이,
 Private car 등을 운영한다. 글로벌 승차공유 시장에서 디디추싱과 우버 다음으로 큰 규모를 차지
 하고 있다(시장 점유율 기준).

최대주주 소프트뱅크 이외 디디추싱과 도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기업들이 투자에 참여
 했다. 한국의 삼성전자, 현대차, SKT도 투자에 참여해 언론의 관심을 받았다. 누적 펀딩 규모 87
 억 달러(2019년 3월 H시리즈 기준), 기업가치 110억 달러로 동남아 IT스타트업 중 최대로 평가
 받고 있다.

동남아 권역은 개방적인 시장구조 덕분에 플랫폼 비즈니스가 조기에 도입되었다. 6.2억명의 거대
 한 인구 기반과 개발도상국이지만 싱가포르, 방콕, 쿠알라룸푸르 같은 12개의 메가시티가 혼재되어
 있어 플랫폼 사업 발전에 유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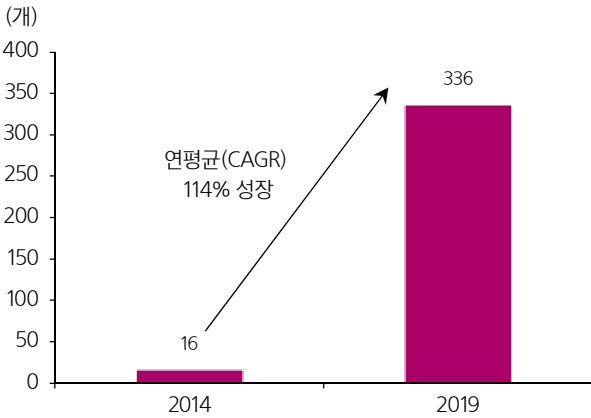
최근 몇 년 사이 중국산 저가 스마트폰 확산으로 동남아 시장 스마트폰 보급률이 60%를 넘어서
 면서 플랫폼 사업 성장을 부스팅했다. 앱 다운로드 수(누적 기준)는 1.4억 건에 이른다. 택시 호
 출 서비스에서 출발해서 공유차량으로 사업을 확대했다. 유희자산을 활용하여 음식배달 및 물건
 배달 서비스에도 진출하며 수평적 확장을 시도하고 있다.

그랩의 다양한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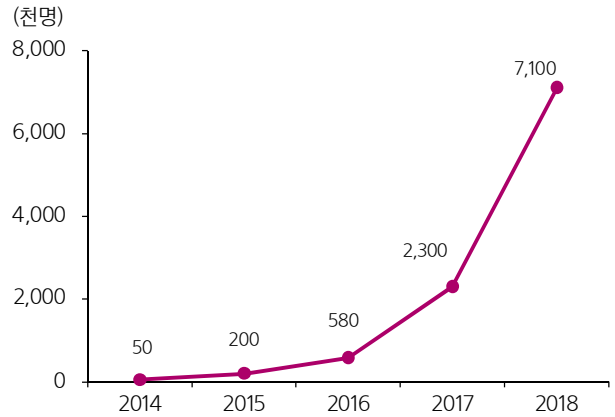
자료: Grab, 삼성증권

그랩 서비스 제공 도시 수



자료: Grab, 삼성증권

그랩 운전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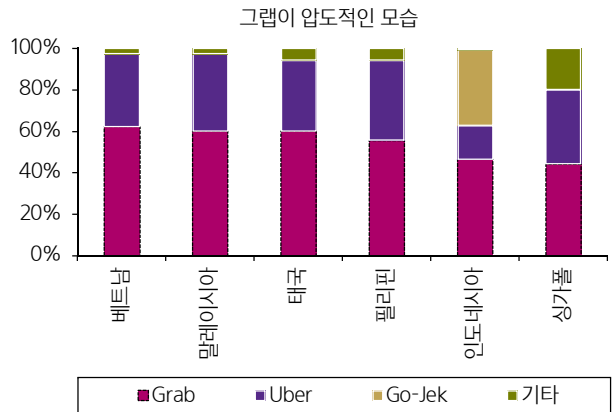
참고: 등록 운전자수 기준
자료: Grab, 삼성증권

그랩 투자 단계별 주요 투자자

시기	시리즈	투자규모 (백만달러)	기업가치 (백만달러)	주요 투자자
2014년 4월				Vertex
2014년 5월		15		CGV Capital, Qunar
2014년 10월		65		Tiger Global, Hillhouse
2014년 12월	D시리즈	250		소프트뱅크
2015년 8월	F시리즈	350		디디추싱, 소프트뱅크, 중국투자공사
2016년 9월	G시리즈	750	3,000	소프트뱅크
2017년 7월	H시리즈	2,500	6,000	소프트뱅크, 디디추싱
2018년 6월 - 2019년 1월	H시리즈	3,100	11,000	도요타, 야하마 모터 현대차 마이크로소프트, 부킹홀딩스, PingAn Capital,
2019년 3월	H시리즈	1,460		소프트뱅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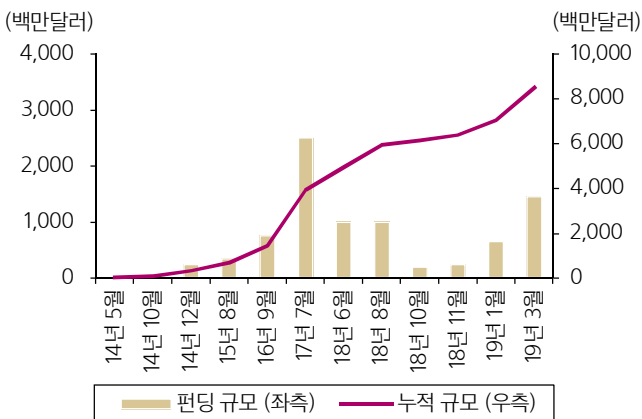
자료: 언론 종합, 삼성증권 정리

동남아 차량공유시장 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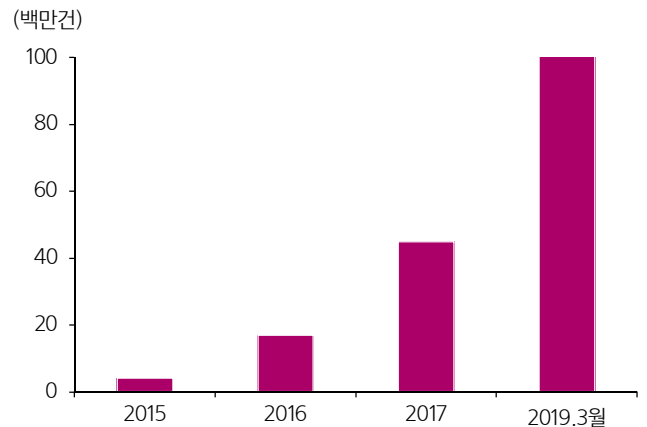
참고: APP 다운로드 수 기준, 자료: 삼성증권 추정

그랩 펀딩 추이



자료: 언론종합, 삼성증권 정리

그랩 다운로드 수(누적)



자료: Grab, 삼성증권

플랫폼의 1인자가 되려면 결제 시장을 장악하라

그랩페이 출시로
플랫폼 비즈니스 확장

그랩은 2016년 8월 Grab Pay를 런칭하고 모바일 결제 상용화에 힘 쏟고 있다. 중국에서 알리바바가 전자상거래 사업을 시작하면서 알리페이를 개발하고 모바일 결제시장을 장악했던 것과 유사한 행보다. 알리페이는 온라인 거래의 신용을 보완하기 위해 에스스코 시스템을 도입하여 중국 소비자들을 공략했다.

동남아 지역은 인구의 25%만이 은행 계좌를 가지고 있어 현금이 주요 지불 수단이다. 모바일 결제 상용화 이전 중국의 환경과 유사하다. Grab Pay는 신용카드를 등록하거나 은행 ATM, 인터넷 뱅킹, 제휴편의점에서 크레딧을 입금할 수 있다. 현재 싱가포르에서는 그랩 이용자의 75% 이상이 Grab Pay를 통해 지불하고 있다.

그랩페이는 동남아 권역 최대 결제 서비스 플랫폼으로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을 포함한 6개국에서 사용 가능하다. 2018년 3월부터 12월까지 월 거래량(Transaction)이 5배 증가했다.

현금 예치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인도네시아 O2O 플랫폼을 운영하는 스타트업 Kudo를 인수했다. Kudo는 은행계좌가 없는 사람들에게 온라인 쇼핑이나 휴대전화 크레딧 구입을 가능하게 한다. 모바일 결제 확대에 집중하기 위한 노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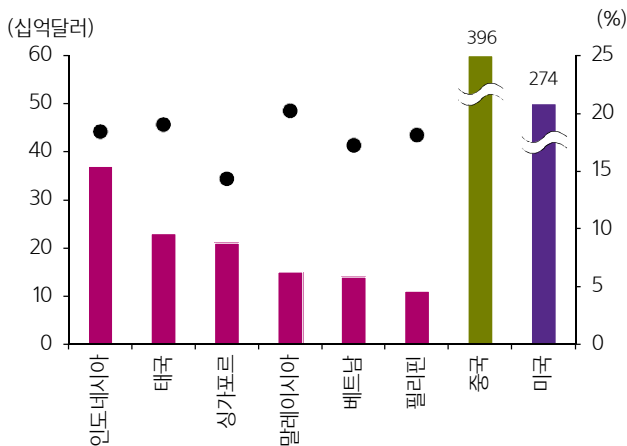
결제 서비스로 데이터 확보
핀테크로 사업영역 확대

결제 서비스는 플랫폼 비즈니스의 핵심이다. 결제 정보를 통해 개인의 단편적인 정보뿐 아니라, 거래 누적 데이터를 통하여 관심사, 선호도를 분석할 수 있게 된다. 데이터를 분석하여 차량 배치 효율을 개선하고 결제 안전 시스템을 강화한다.

그랩페이를 통한 결제 서비스의 혁신은 이미 진행 중이다. 태국의 지역 노점상에서도 가격 옆에 붙여둔 QR코드로 결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모바일 결제의 확산으로 인도네시아인 가운데 은행 계좌를 보유한 사람의 비율은 2017년 49%에서 2019년 70%로 늘어날 전망이다. 모바일 결제가 불러온 변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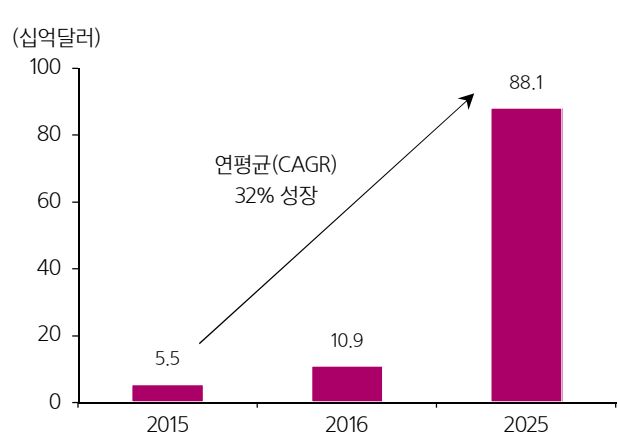
온 오프라인 결제를 장악하면 금융 영역으로도 확장이 가능하다. 동사는 중국 최대 온라인보험사인 중앙보험(6060.HK)과 JV를 설립하고 온라인 보험을 출시하여 핀테크 분야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동남아 주요국가 모바일 결제 시장 규모



참고: 2021년 전망치. ●는 2017~2021년 연평균성장률
자료: 싱가포르 UOB은행, Statista, 삼성증권

동남아시아 전자상거래 시장 규모



자료: Temasek, 삼성증권

우버 철수로 확인된 지역별 네트워크 효과

2018년 3월 우버는 동남아 사업권을 그랩에 매각하고 동남아 시장에서 철수하였다. 글로벌 플레이어 우버에게 로컬 시장을 수성한 비결로 현지화 전략을 꼽는다.

현지화 전략으로
우버의 동남아 사업권을
인수

동남아 시장은 신용카드 사용률이 10%에 불과하다. 현지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장점을 활용하여 그랩은 현금 결제를 도입했고 점유율을 빠르게 늘릴 수 있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야 우버가 일부 지역에 한하여 현금결제를 도입한 것과 대조적이다. 현지화 전략이 적중한 셈이다.

또한 대부분의 동남아 지역은 도로 교통 인프라가 취약해서 교통체증이 심하다. 오토바이가 주요 교통수단으로 이용되며 아무데서나 오토바이를 잡아타는 방식이 성행한다. 세계에서 차량 소유 비중이 가장 낮은 지역이다. 현실에 맞게 Grab Bike를 런칭하여 승객을 운송하며 점유율을 빠르게 끌어올렸다.

그랩의 동남아 시장 점유율은 75%에 달한다. 누적 승차건수가 30억건을 돌파했고,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 7개 시장에서 '1초 66건 호출' 기록을 세웠다.

우버의 철수는 문화적인 특수성과 현지 이슈로 인해 글로벌 독점 차량공유 플랫폼이 출현하기 어려움을 확인한 사례다. 이후 동남아 시장은 그랩이 독식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만 고젝이 활약하고 있을 뿐이다. 올해 인도네시아 시장 공략을 위해 신규로 자금을 유치했다. 동남아 시장 독점을 향한 그랩과 자국 이외의 시장으로 영역을 확장하려는 고젝의 경쟁이 예고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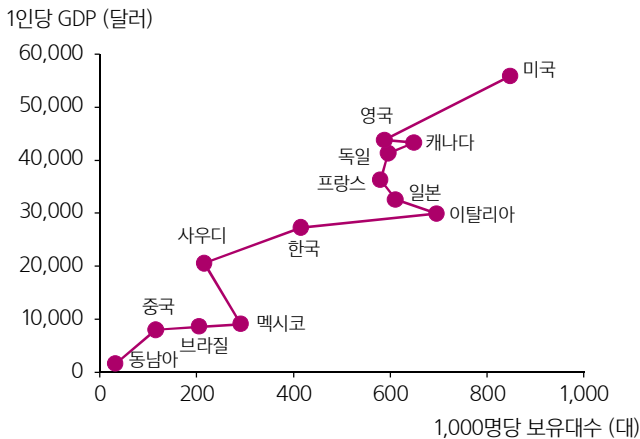
글로벌 투자자들의
투자 규모 확대

고성장에도 불구하고 아직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기존 구글맵 사용을 탈피하고 SKT와 협력하여 자체 지도를 제작, GPS시스템에도 투자한다. 데이터 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도 필요하다. 지역 사업자(택시 등), 정부, 하드웨어(모빌리티) 기업과 협력하여 플랫폼 확장도 지속해야 한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지만 루트는 비교적 명확하다. 우버, 디디추싱 등 앞서 성장한 차량공유 기업이 걸어간 길을 학습하면 된다. 글로벌 투자자들도 그랩의 성장 가능성에 베풀며 투자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 미얀마, 필리핀 등지는 아직 스마트폰 보급률이 낮아 향후 5년간 침투율 확대에 따른 성장도 가능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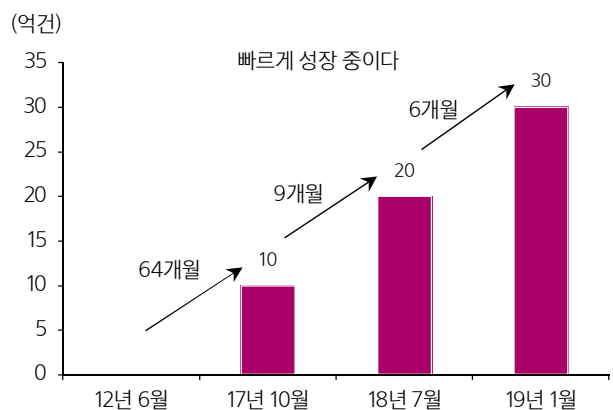
2019년 3월 소프트뱅크에서 15억 달러를 추가 유치하여 누적 펀딩 규모가 87억 달러에 달한다. 기업가치 110억 달러(최근 라운드 기준 VC 산정 가치)로 평가되고 있다.

국가별 자동차 보유대수 및 자동차 보급률



자료: 세계 자동차 협회, 삼성증권

그랩 누적 승차건수



자료: Grab, 삼성증권

지역 내 경쟁업체 고젝

고젝은 인도네시아 시장 40%를 점유

고젝은 동남아시아 최대 인구 보유국인 인도네시아에서 2011년 설립된 업체로 해당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구축하고 있다. 전세계 교통체증 1위 도시인 자카르타에서 바이크 택시(O jek)는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다. 인도네시아 시장의 40%를 점유하고 있다. 드라이버의 유효시간을 확대할 목적으로 음식 배달(Go-Food), 식료품 배달(Go-Mart), 집청소(Go-Clean), 마사지사 파견(Go-Massage) 등으로 수평적 확장을 했다. 고젝효과(Go-jek effect)라는 신조어를 창출하며 음식점, 약국까지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O2O바람을 일으키며 연 200% 이상 고성장 중이다. 특히 푸드 딜리버리 시장의 95%를 점유하고 있다.

모바일 결제 시장 진출 등 그랩과 유사한 성장전략

고젝 역시 결제 서비스 Go-Pay를 가지고 있다. 특히 바이크 택시 결제에 Go-Pay를 이용하면 도로변에 내려서 현금을 주고받을 필요가 없어 편리하다. 현재 고젝 이용자의 절반 이상이 Go-Pay로 결제한다. 물론 은행계좌가 없는 사람들은 현금을 지불할 수도 있다.

그랩과 마찬가지로 고젝도 결제 시장 장악에 집중하고 있다. 베트남의 비에틴뱅크 및 싱가포르의 DBS 홀딩스와 협력하여 디지털 결제 사업 확장에 투자하고 있다. 올해 태국을 시작으로 동남아 타 국가에 본격적으로 진출했다.

인도네시아는 동남아 인구 1위 국가로 그랩의 시장 공략이 재점화되고 있다. 그랩은 푸드 딜리버리 등 서비스 영역을 확대하여 동남아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확고히 하기 위해 최근 유치한 시리즈 H 투자금의 상당부분을 투자할 것으로 알려진다. 그랩과 고젝의 경쟁이 예고된다.

그랩 vs 고젝 비교

구분	Grab	Gojek
설립년도	2011	2011
CEO	Anthony Tan	Nadiem Makarim
주요투자자	소프트뱅크, 디디추싱, 도요타, CGV, Vertex	텐센트, JD.com, KKR, WARBURG PINCUS, FARALLON
서비스지역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8개국 235개 도시	인도네시아 내 15개 도시
서비스분야	운송(택시, Private car, Hitch, Shuttle, 애완견) 음식배달, 택배, Payment	운송, 음식배달, 마트, 택배, 이사, Payment
일간 거래건수(백만)	3.0	2.2
기업가치(십억달러)	11	9

자료: Grab, Gojek, 삼성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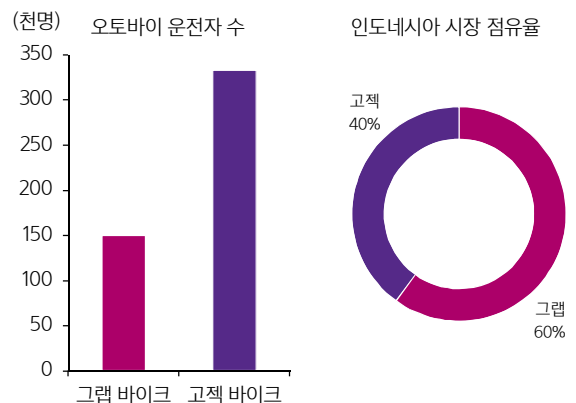
고젝의 다양한 서비스

-  고 푸드
-  고 마트
-  고 마사지
- 고 메드 | 의약품 구매배달
- 고 클린 | 청소 대행
- 고 틱스 | 티켓 예약
- 고 글램 | 출장 뷰티
- 고 샌드 | 퀵서비스
- 고 카 | 택시 공유



자료:Gojek, 삼성증권

그랩 vs 고젝 오토바이 시장 경쟁



자료: Grab, Gojek, 삼성증권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분석자료의 애널리스트는 3월 13일 현재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3월 13일 현재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동의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